

길을 찾는 이들에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요14:6 / 히브리서 10:19-20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길을 묻고 찾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대다수 사람들이 찾는 길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길이다.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성취한다. 좋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길이 한 지점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바로 죽음이다.**

아무리 좋은 길도, 아무리 넓은 길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국 막다른 길이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더 깊어진다.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는가? 영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것들은 다 길을 말하지만, 그 끝을 책임지지 못한다. 왜? 어떤 인간도 그 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무도 보지 못한 길을 알려 주는 책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길”이다. (*)

성경은 단순히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니다.

잃어버린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이 어떻게 다시 열리는지를 보여 주는 책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단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오늘 < > 인간이 찾는 그 길, 특히 **요즘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이 길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내가 길이라고 하셨다.”

그것도 이 땅의 길이 아니다. 다른 모든 길은 이 땅에서 끝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 **One way**
지금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면서 이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겠다.

1. 막혀 버린 길 — 창세기 3장

성경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이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죄의 결과는 창3:24이

다.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 3:24) (*)

여기서 핵심 표현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없애지 않았다. 막으셨다.

길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접근이 차단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길이 사라졌다면 희망이 없다. 그러나 길이 막혔다면 그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그냥 막지 않으셨다. 그룹들, 즉 천상의 존재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로 막으셨다.

(*)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차단벽이다.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이 이 설교 전체의 열쇠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수치심이 아니다. 단순히 고통이 아니다. 죄가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바로 ‘길의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영원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린 것이다.

아담은 죄를 지은 뒤 무엇을 하였는가? 숨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담대함을 잃었다. 길이 차단되었다.

막힌 길을 찾으려고 인간은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길을 회복할 수 없다. 그룹들과 불타는 칼이 여전히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학적 절망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가려진 길 — 성막과 성전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이집트 탈출 이후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단순한 예배 장소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적 계시다. 무엇을 보여 주시려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어떤 구조인가?”

성막의 핵심 진리는 이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출애굽기 25:8)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은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임재는 두려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이 계시지만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것이 성막이 보여 주는 긴장이다.

성막의 구조를 보라.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바깥뜰과 성막(성소과 지성소)다. (*)

바깥뜰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구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제한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거룩함이 요구된다. 죄인인 인간은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그냥 설 수 없다.

지성소가 핵심이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다. 그것도 일 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가능하였다.

그는 그냥 들어갈 수 없었다. 레위기 16장, 대제사장은 몸을 씻고 정결한 예복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죄 헌물을 드려 속죄해야 했다(6). 향을 피워 연기로 언약궤를 가려야 하였다(13). 직접 보면 죽기 때문이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였다(15). 피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 주는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조차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런데 지성소 앞에는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였다.

자세히 보라. (*)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천으로 만든 장막이다. 그러나 그 영적 의미는 이것이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나아올 수 없다.” 차단벽이다.

이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두께가 손 한 뼨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두께였다. 그것은 장벽이었다. 접근 금지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있다. 그 휘장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었는가?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출애굽기 26:31) (*)

그룹이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바로 그 그룹이 성막 휘장에 그대로 수놓아져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것이다. 에덴에서 불타는 칼과 함께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던 그룹들이 휘장 위에 새겨져 있다.

창세기 3장의 그 차단벽이 성막에서도 계속 막혀 있다.

성막이 보여 주는 것은 이것이다.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휘장이라는 차단벽이 여전히 가리고 있다. 그룹들이 여전히 거기 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히10:1)”

성막은 실체가 아니다. 장차 올 것을 가리키는 그림이다.

성막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표다.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분의 그림자다. 짐승의 희생물은 장차 드러질 단번 속죄 희생물의 그림자다. 그리고 휘장은, 바로 그 휘장은 장차 찢어질 무언가의 그림자다.

그렇다면 이 휘장은 어떻게 제거되는가?

길이 열리다 —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6)

"내가 길이다." 바로 여기서 혁명이 일어난다. 구약 전체에서 길은 개념이고 방향이고 원칙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길 자체로 오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다. 모든 종교는 길을 설명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셨다.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길이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디서 오셨는가? 이 길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요한복음 1장이 그 답을 준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1:1)

여기의 처음은 창세기가 시작되기 이전을 말한다. 그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즉 이 길은 시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영원 전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막혔는가?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다.

막힌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야 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그 차단을 뚫을 수 없었다. 그룹들과

불타는 칼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실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셨다.

히브리서의 실체와 모형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질문해야 한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성막은 무엇이였는가?

왜 하나님은 성막의 복잡한 구조와 휘장을 통해 길을 막아 두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주어진다.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총 13장에 걸쳐서 말하려는 초점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제도가 가리키던 실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신 전체에 걸쳐 하나씩 보여 준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모세보다 크시다. 아론보다 크시다. 레위기의 모든 희생 제사보다 크시다.

그리고 10장에 이르러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다.

성막의 휘장, 그 모든 구조의 핵심인 그 휘장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선언이 히브리서 10장 19-20절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통해서다.

이 길은 짐승의 피로 잠시 유지되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히 열린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열렸는가? 이 길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 열렸다.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해석이다.

“성막의 휘장? 그것은 사실 내 아들의 육체를 보여 주는 그림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예표가 될 수 있는가?
 휘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한다. 차단벽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의 신성은 육체 안에 가려져 있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 차단벽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라는 휘장 차단벽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즉 성막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며 죄인의 접근을 막는 차단벽이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는 차단벽이었다. 그분을 사람으로만 본다.
 둘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결정적인 경계 즉 차단벽이었다.
 그러므로 이 차단 장벽이 제거되는 방식도 동일하다. 찢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육체가 찢겼다. 못이 박혔고, 창이 찢렸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 육체가 완전히 찢겨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마태복음 27:51)
 두 가지 찢어짐이 동시에 일어났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겼다.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두 사건이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된다.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길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친히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길을 여셨다.”
 성소의 휘장은 저절로 찢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겼기 때문에 찢어진 것이다.
 그림자가 실체를 따라간 것이다. 예고편이 본편과 함께 끝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다시 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새롭고 살아 있는 길.” ‘새롭다’는 문자적으로 “최근에 죽임을 당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길은 최근에 죽임을 당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길이다.
 이것은 동시에 “살아 있는” 길이다(영원한 길). 왜? 예수님이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담대함’이라는 말을 보라. 이 단어는 단순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리낌 없이, 완전히 열린 상태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아담이 죄를 지은 뒤 무엇을 하였는가? 숨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었다.
 왜? 담대함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그 담대함이 히브리서 10장에서 회복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다. 일 년에 한 번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답이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길을 걷는 자들 — 사도행전

1. 초대교회의 정체성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온다. 초대 성도들은 기독교를 지칭할 때 이렇게 불렀다.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사도행전 9:2)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므로 (사도행전 19:9)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사도행전 19:23)

"내가 이것을 각하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사도행전 24:14)

여기에 나오는 그 길(The Way)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았다. 조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 길"이라고 하였다.

막혔던 길을 예수님이 여시자 사람들이 그 길 위를 걷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은 "그 길"이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길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이 길 때문에 핍박받았다. 이 길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 길 때문에 순교하였다. 왜 그랬겠는가? 만약 다른 길도 있었다면 그냥 다른 길로 가면 됐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그 길을 걸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완전히 열린 길 — 요한계시록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닫힌 길로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 길이 완전히 열린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요한계시록 22:14, 흠정역)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막혔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었다.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막혀 있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가 주어진다.

누구에게 열리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 답한다.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21:27, 흠정역)

어린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가

성경은 잃어버린 길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야기다.

창세기의 에덴에서 막혔다. 성막에서 가려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열렸다. 사도행전에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생겼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개방된다. 더 이상 그룹들이 막지 않는다.

더 이상 불타는 칼이 돌지 않는다. 더 이상 휘장이 가리지 않는다. 길이 완전히 뚫렸다.

서론에서 이 질문을 하였다.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는가?" 이제 답이 나왔다. 있다.

단 하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한 길이다. (*) One way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인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인가? 선한 행실의 길인가? 종교의 길인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잠언 14:12)

구원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길 위에 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6, 흠정역)

이 말씀을 믿으라. 이 길 위에 서라. 이 길을 걸으라.

이 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